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8월 3주~8월 4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프라보워 정부 8대 우선순위 사업 포함 인프라사업 리스트 발표¹⁾ (Bisnis, 8/18)

- 2026년에 정부가 추진할 기본 인프라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국도 194.75km 건설
 - 국도 1,507km 보수
 - 유료도로 28.19km 건설
 - 3,954m 교량 건설
 - 362m 고가차도/지하차도 건설
 - 공항 2개 단위 개발
 - 파탐반 항만 개발
 - 댐 15개 건설 진행 중
 - 관개시설 4,000ha 신설
 - 관개시설 100,000ha 복구
- 기본 인프라 개발 사업 중 유료도로 사업이 2026년 재정연도 대통령 프라보워의 8대 개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며, 2026년에 28.19km의 신규 유료도로만 건설할 계획
- 조코위 前 대통령 재임 시기와 달리, 프라보워 정부에서는 인프라 예산이 경제 기능 예산에 통합되어 2026년 국가예산안에 약 501.7억불 (820.4tril IDR) 책정

○ [인프라-철도] PT MRT Jakarta, Lebak Bulus-Serpong 노선 시나르마스와 MOU하 PPP로 추진 검토²⁾(Bisnis, 8/8)

- PT MRT Jakarta (MRTJ) Farchad Mahfud 사업개발이사는 정부 예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Lebak Bulus-Serpong 노선을 전액 민간 자금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7월 24일 Sinarmas Land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 해당 MoU는 전액 민간 자금으로 사업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조사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개발 속도를 높이고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
- Farchad 이사는 고품질 대중교통 수요가 높지만 정부 예산이 제한적이라며 혁신적 금융 조달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MRTJ는 전액 민간조달 외에도 PPP 방식도 검토함. 이를 통해 사업 개발을 가속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 [인프라-도로] 반둥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진행 중³⁾(Bisnis, 8/11)

- 공공사업부(PU) 유료도로규제기관(BPJT) Wilan Oktavian 기관장은 반둥 시내 고속도로(BIUTR) 개발 계획이 현재 타당성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며, 입찰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유보했음. 해당 연구는 공공사업부 인프라재원조달총국(DJPI)에서 수행 중이며, 인프라재원조달총국 Rachman Arief Dienaputra 국장은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
- BIUTR 사업은 최근 반둥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장 교통 혼잡한 도시로 발표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해당 계획은 조코위 前 대통령 재임 시 국가전략사업(PNS) 목록에 포함되어 승인됨
- 경제조정부는 BIUTR 사업의 투자 규모를 약 479백만불 (7.83tril IDR)로 발표한 바 있으며, 사업 범위에는 반둥 시내 고속도로 (Bandung Intra-Urban Toll Road)와 반둥 북남 연결도로 (North-South Link) 건설이 포함

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18/45/1903301/ak-masuk-8-prioritas-prabowo-target-bangun-jalan-tol-cuma-28-km-pada-2026>

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08/98/1900449/mrt-jakarta-kaji-peluang-proyek-lebak-bulus-serpong-dibiayai-swasta>

3)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11/45/1901192/proyek-tol-dalam-kota-bandung-biutr-tak-kunjung-dibangun-mengapa>

○ [인프라-도로] PT Hutama Karya, 신수도 유료도로 3A 구간 완공, Balikpapan-Samrainda 유료도로와 연결⁴⁾(Bisnis, 8/18)

- 국영 건설회사 PT Hutama Karya의 Adjib Al Hakim Executive Vice President는 신수도 유료도로 3A 구간인 Karangjoang-KKT Kariangau 구간의 건설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Balikpapan-Samrainda 유료도로와 직접 연결된다고 설명
- Adjib 부회장은 현재 해당 구간이 시공사에서 정부로 임시 인도 (PHO) 절차를 진행 중이며, 완공이 당초 목표인 2025년 12월보다 앞당겨 이루어졌음을 강조함. 또한 PHO 절차 종료 후, 해당 구간은 포장 안전과 성능 유지를 위해 720일간 유지관리 기간에 들어가며, 이후 운영 시험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
- Adjib 부회장은 비록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신수도 유료도로의 전면 개통은 신수도 유료도로 1A-6C 구간이 모두 연결된 후에 진행될 계획이며, 완공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함. Balikpapan에서 신수도까지의 이동 시간을 기존 2~3시간에서 약 1시간으로 단축하는 교통망을 형성함. 이로써 국민과 정부, 기업의 이동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 [도시개발-산단] PT Suryacipta Swadaya 소유 Subang Smartpolitan 지역, 중국 투자자 관심⁵⁾(Kompas, 8/17)

- PT Suryacipta Swadaya의 Abednego 부사장은 중국 기업들이 생산 시설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산업단지 중 Subang Smartpolitan에 대한 투자 관심을 크게 보이며, 장난감, 섬유 제조업체부터 전기차(EV)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라 설명
- 이는 미국의 30%가 넘는 고율 관세 부과 이후 인도네시아로 생산 거점을 대체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수요에서 비롯됨. Subang Smartpolitan 산업단지는 2,700ha 이상의 부지이며, 서부 자바에

위치한 Patimban 항만 인프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 자카르타의 산업용 토지 컨설팅 회사 창립자인 Gio Xiayou는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5년 1분기에는 산업 및 물류창고 부동산 가격이 연간 15~2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지난 20년간 가장 빠른 상승률이라고 설명

○ [도시개발-산단] PT Jababeka, 중국 투자자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표명⁶⁾(Bisnis, 8/19)

- PT Jababeka Tbk(KIJA)의 Setyono Djuandi Darmono 사장은 2025년 초부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 기업들이 Jababeka를 포함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관심과 방문이 증가했으며, 공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에너지, 전기차 생태계, 전자 및 물류 분야에 속한다고 설명
- Darmono 사장은 당사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자 유치할 것이며, 예로 Kendal 및 Batang 지역의 Jababeka 산업단지 프로젝트가 노동 집약적 투자와 전기차(EV) 투자를 유치할 계획임을 덧붙임. 이 지역은 정부 지원과 경제특구(SEZ)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중부 자바가 비용 경쟁력을 갖춘 산업 기지임을 강조
- Darmono 사장은 Tanjung Lesung는 Jababeka가 정부 지원 아래 거의 완공된 89km 유료 도로 건설과 선도 공항을 포함한 Tanjung Lesung 경제특구(SEZ)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제 해양 관광지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

○ [도시개발-주거] 주택정주부, 내년도 200만 주택 개·보수 위해 26.3억불 예산 배정⁷⁾(Bisnis, 8/10)

- 주택정주부(PKP)의 Fahri Hamzah 차관은 2026 회계연도 300만 주택 프로그램 로드맵을 공개함. 내년도 300만 주택 프로그램은

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18/45/1908413/tol-ikan-seksi-3a-rampung-dibangun-terkoneksi-tol-balikpapan-samarinda>

5) <https://money.kompas.com/read/2025/08/17/090000396/investor-china-serbu-subang-harga-lahan-industri-melonjak>

6)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19/47/1908886/investor-china-serbu-ri-jababeka-kija-tangkap-peluang-raup-cuan>

7)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10/47/1900926/anggaran-m43-triliun-disiapkan-untuk-renovasi-2-juta-unit-rumah-tahun-depan>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개·보수 사업, 즉 자가주택 지원 (Self-Help Housing Stimulus Assistance, BSPS)을 통해 추진되며 약 26.3억불 (43tril IDR)의 예산을 내년 회계연도에 배정할 예정임을 밝힘

- Fahri Hamzah 차관은 ISR 2M BSPS 프로그램이 기존 주택 소유자, 특히 농촌 지역 주민 중 거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나머지 100만 가구는 민간 부문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되고, 주로 슬럼 지역 정비와 도시 내 쾌적한 주택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
- Fahri Hamzah 차관은 연안 지역 정비와 수직형 주택 건설할 계획이며, 인도네시아 연안 지역의 약 10%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국가 주택 적체를 2,000만 가구 감소시키겠다는 목표와 연계될 것이라고 설명. 또한 공공주택 시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주택 보조금은 단순 대출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토지 확보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 [플랜트-원전] 인니 원자력규제기관, 미국 원자력기업 Thorcon의 Bangka Belitung 원전 부지 평가 승인⁸⁾(Bisnis, 8/7)

- 원자력규제기관(Bapeten)은 Bangka Belitung Kelasa Island에 위치한 Thorcon 500 원자력발전소 부지 평가를 승인함. 이번 승인은 PT Thorcon Power Indonesia(TPI)에 부여된 것으로, TPI는 미국 투자자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법인임
- Bapeten 원자력시설 및 물질허가국의 Wiryono 국장은 기술 평가가 당초 1년으로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126 근무일 만에 완료되었다고 밝히며, 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로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가속화를 지원하려는 Bapeten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
- 이번 Bapeten 청장 결정에 따라 PT TPI는 제출한 부지평가프로그램(PET) 및 부지평가관리시스템(SMET)에 따라 부지 평가 활동

을 수행할 수 있게 됨. Wiryono 국장은 PET에 부지의 지속 가능성 평가 계획과 외부 위해 요인 영향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함. 외부 위해 요인 평가는 지진, 지반공학, 화산, 기상·수문, 인위적 사고, 방사성 물질 등 6개 측면에서 이루어질 예정

○ [플랜트-원전] 에너지광물자원부, 미국 Thorcon의 Bangka Belitung 원전 부지 평가승인이 최종허가는 아님을 밝힘⁹⁾(Bisnis, 8/11)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신재생에너지보존국 Eniya Listiana Dewi 국장은 정부가 Bangka Belitung Kelasa 섬에서의 원자력발전소 (PLTN) 건설에 대해 승인이나 허가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
- 원자력규제기관(Bapeten)이 PT TPI에 부지 평가 승인을 발급했으나, 이는 안전성·적합성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일 뿐 최종 부지 허가가 아니며, 최종 부지 승인 권한은 에너지광물자원부 Bahlil Lahadalia 장관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 PT TPI는 미국 투자자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법인임
- Eniya 국장은 현재 법무인권부, 국방부, 환경산림부, 국가연구혁신청(BRIN) 등 6개 원전 작업반에 속한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 중이며, 향후 회의를 열어 원자력발전소 인가에 대한 추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힘

2. 주요 기업·기관 동향

○ [해외은행] 12개 외국은행, 다난타라에 100억불 신용한도 제공¹⁰⁾ (Kocham, 8/11)

-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Danantara는 12개 외국 은행으로부터 100억불 규모의 무담보 대출 약정을 확보함. 이는 동남아시아 국부펀드에 제공된 역대 최대 규모의 리볼빙 크레디트 라인으로, 전략적 투자 관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30807/44/1900421/bapeten-beri-restu-thorcon-perusahaan-nuklir-asal-as-untuk-evaluasi-tapak-di-babel>

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30811/44/1901293/bahlil-belum-teken-izin-tapak-untuk-pembangkit-listrik-nuklir-thorcon>

- Danantara Rosan Roeslani CEO는 7월 22일 사전 타당성 조사(FS) 문서 제출 행사에서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신설 기관인 다난타라에 보여준 신뢰는 높은 평판과 신용도를 입증하는 것이며, 특히 모든 대출이 무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점은 외국 은행들이 다난타라 경영진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 단 12개 은행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앞서 다난타라는 Qatar Investment Authority(QIA), China Investment Corporation(CIC),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RDIF) 등 해외 국부펀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70억불 규모의 지분 투자 자금을 유치함. 또한 총 386.3억불 규모의 18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진행중. 프로젝트는 ▲광물 다운스트림(8개) ▲농업(3개) ▲해양수산(3개) ▲에너지 전환(2개) ▲에너지 안보(2개) 등 국가 경제기반 다양한 분야를 포괄

○ [해외기업] 중국 Huayou·IBC 전기차 배터리공장 2027년 완공 목표11)(Cnbc, 8/7)

- 에너지광물자원부 Bahlil Lahadalia 장관은 중국 Zhejiang Huayou Cobalt Co와 Indonesia Battery Corporation(IBC)이 추진하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투자 규모는 약 8,011백만불(131tril IDR)에 달한다고 밝힘. 정부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Huayou는 곧 PT Aneka Tambang(ANTAM) 및 IBC와 함께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
- Huayou는 당초 LG Energy Solution(LGES)을 대체해 참여하게 되었음. LGES는 IBC, ANTAM, PT Pertamina, PT PLN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초기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정부 결정에 따라 철수했으며, 4개 합작법인(JV) 중 3개에서 철수하고 1개 JV만 운영 중임
- 투자부 Rosan Roeslani 장관은 Huayou가 향후 인도네시아에 약 미

화 200억불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은 약 88억불이라고 설명. 또한 Huayou는 Weda Bay, Morowali 산업단지 외에 Pomalaa 지역에서도 사업 확장을 검토 중임

○ [해외기업] 러시아 기업, 광물·석탄 투자 의향 표명12)(Bisnis, 8/8)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광물·석탄국 Tri Winarno 국장은 7월 8일 자카르타에서 러시아 기업이 광물·석탄 분야 탐사 및 투자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음
- Tri 국장은 러시아 기업의 에너지 분야 투자 관심이 2025년 6월 프라보워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 이후 나타난 것으로, 당시 러시아는 석유·가스 분야에만 관심을 보였고, 액화천연가스(LNG) 탐사·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고 설명
- 에너지광물자원부 Bahlil Lahadalia 장관은 러시아 기업들이 유류 유정 개발이나 신규 유정 운영에 협력할 수 있으며, 첨단 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와의 협력이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

○ [해외정부] 뉴질랜드 무역투자부, 인도네시아 무역부와 식품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모색13)(Antara, 8/8)

-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Budi Santoso 장관과 뉴질랜드 무역투자부의 Todd Michael McClay 장관은 8월 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양국 장관 회담에서 식품·농업, 지열 에너지, 중소기업 개발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Santoso 장관은 양국 간 시너지가 경제 회복력 강화와 국민에 대한 무역 혜택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 대상 일방적 관세 정책과 이로 인한 지역 내 기업 활동 영향 등 글로벌 무역 상황이 논의됨. Santoso 장관은 국제 무역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기업 활동의 확실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설명

11)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50807091508-4-655833/satu-lagi-investor-china-bakal-investasi-di-proyek-baterai-rp-131-tri>

1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08/44/1900432/esdm-ungkap-penemuan-rusia-mulai-link-investasi-di-sektor-minerba>

13) <https://en.antaranews.com/news/372173/indonesia-new-zealand-eye-collaboration-in-food-renewable-energy>

- Santoso 장관은 2029년까지 양국 간 무역 목표인 35억불 (60bil NZD)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인도네시아-뉴질랜드 포괄적 파트너십 행동계획(PoA 2025-2029)과 일치하고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AANZ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협정 활용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

3. 정부 정책동향

○ 2026 회계연도 국가예산 발표 앞두고 인프라 예산 주요 화두¹⁴⁾ (Bisnis, 8/11)

-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 회계연도 국가예산 배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인프라 예산이 주요 논의 대상임. 이는 조코위 前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신수도 고속도로 연결망 개발을 위해 대규모 자본 지출을 지속한 전례에 따른 것임
- 2025년도 인프라 예산은 조코위 前 대통령 재임중 약 245억불 (400.3tril IDR)이 배정되었으며, 해당 예산을 교육·보건, 연결 인프라, 식량 및 에너지 인프라 개발 촉진에 사용할 계획
- 공공사업부 유료도로규제기관(BPJT) Sonny Sulaksono 위원은 2026년 국가 예산 할당 수치를 알지 못해 프라보워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 배정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힘. 재무부 Sri Mulyani 장관은 2025~2029년 동안 약 6253.7억불의 인프라 예산이 필요하며, 정부가 연결성 확대와 기본 인프라 서비스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

○ 에너지광물자원부, 2025년 상반기 에너지 부문 세외수입 84.9억불 달성 발표¹⁵⁾(Tempo, 8/12)

- 에너지광물자원부 Bahlil Lahadalia 장관은 2025년 상반기 에너지

부문 세외수입이 약 84.9억불 (138.8tril IDR)로 연간 목표치 약 155억불(254.5tril IDR)의 54.5%를 달성했으며, 원자재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Bahlil 장관은 2025년 상반기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에서 총 753,578명의 고용이 창출되었고, 투자 규모는 약 138.1억불 (225.8tril IDR)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1% 증가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는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 유입의 결과라고 덧붙임
- Bahlil 장관은 석유·가스 부문이 81억불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광물·석탄 31억불, 전력 19억불,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부문은 8억불을 기록하였다고 설명

4. 녹색산업 동향

○ Pertamina NRE, 필리핀 재생에너지 기업 CREC 지분 20% 인수¹⁶⁾ (Cnbc, 8/21)

- Pertamina NRE John Anis CEO는 이번 협력이 인도네시아의 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 그는 CREC의 재생에너지 개발 전문성과 경험이 Pertamina NRE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CREC는 태양광, 풍력, 지열 사업 등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의 공동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예정. CREC는 현재 총 설비용량 287MW의 태양광 설비를 운영 중이며, 향후 5년 내 5GW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
- CREC Oliver Tan CEO는 이번 파트너십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과 실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힘

1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0811/45/1901238/rencana-anggaran-infrastruktur-prabowo-jelang-nda-keuangan-rapbn-2026>

15) <https://en.tempo.co/read/20250809/indonesia-records-rp138-8tr-in-energy-sector-revenue-for-first-half-2025>

16)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5082110119-4-66006/pertamina-akuisisi-perusahaan-energi-filipina-apa-manfaatnya-bagi-ri>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SM플러스 (시나르마스 그룹계열사) - 한국투자리얼에셋자산운용
- (참여기업) LG CNS (MEP(장비공급, 설치) 수행)
- (사 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LG CNS와 MEP(장비설치) 계약, 현지업체(Acset)와 시공계약 체결완료, 본사 투자심의 원안의결 ('25.9.4) 후 이사회 부의 준비중
- (25년 센터목표) 본사 투자의결

- (주요동향) KIND 투자심의 부의를 위해 한투리얼에셋자산운용 본사와 상세 Clarification 진행중

② BSD 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46.6ha에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및 샵하우스)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후 연장 (~'25.8월) - 토지가 협상 및 대우건설 자체 FS 완료 - Termsheet 연장 완료 - 최종 FS 수행 필요
- (25년 센터목표) 3자 MOU 체결 / 최종 FS 수행, DD 완료

- (주요동향) 최종FS 수행을 위해 대우건설, KIND 자금지원 FS 공동 신청 완료 (8.26 마감)

③ 신수도 공무원주택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 (참여기업) 삼성물산, 브란타스(신수도 공무원주택 도급공사 실적보유 건설공기업)
- (사 업 비) 약 4억불
- (사업내용) 신수도내 공무원주택(아파트 21개동) 건설, AP로 회수
- (추진현황) '24.10 삼성물산-브란타스 MOU 체결, '24.11 LOI 제출, '25.5.22 LTP 수령
- (25년 센터목표) LTP 기한연장 취득 / 삼성물산-KIND 공동 FS 수행 합의

- (주요동향) 삼성물산, 현지컨설턴트 용역계약 체결

④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현지 디벨로퍼/토지주
- (참여기업) GS건설 및 중국계 기업 참여 검토중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내 산업단지를 단계별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전반적 협력 MOU 체결, '25.5~7월 NDA 체결 및 Pre-FS 수행 / '25년말 JVA 체결 목표
- (25년 센터목표) Deal Pipeline 등재 / 사전검토위 또는 사업선정위 통과, 개발참여

- (주요동향) 센터→KIND본사 안전보고 완료 (9.25)

⑤ 자카르타 MRT 4단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자카르타 주정부(DKI Jakarta)
- (참 여 사) KIND, 국가철도공단, 삼성물산 + 플레너리 아시아(MOU 체결후 협의중)
- (사 업 비) 15억불 ('22년 Pre-F/S 기준)
- (사업내용) 자카르타 MRT 4호선 건설, 유지보수 ⇒ AP로 회수 (운영 분리예정)
- (추진현황) K-컨소 LOI 제출('23.2), LTP(AP 제외) 수령('24.1.26), 수정 LTP(AP 포함) 수령('25.2.19) - 기한연장 요청('25.7.8) - 플레너리 협력 협의중
- (25년 센터목표) 기한연장 획득 / 플레너리 참여 확정 및 FS업데이트

○ (주요동향) 플레너리와 MOU 체결합의 및 문구합의 완료

- 8.26일부 플레너리가 먼저 서명후 원본4부 한국으로 발송 / 삼성 물산, 철도공단, KIND 각사 법률검토 및 체결품의 진행중
- MOU체결후 Pre-FS 내용 공유예정 / 재무모델이 국문으로 되어 있어 번역 필요, 번역비용 분담방안 협의 예정 / 9월 1주차 센터 싱가포르 출장시 플레너리 아시아 대표 면담 예정 (9.3)

□ 기타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① 기타 프로젝트 동향

① 수도이전 / 신수도(누산타라) 건립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Otorita Ibu Kota Nusantara)
- (참여기업) 현지 국영건설사 재정사업 참여중 / PPP사업 외국기업 참여 추진중
- (사 업 비) 466조 Rp (원화 약 40조원)
- (사업내용) 수도 자카르타의 대기 및 수질 오염, 난개발, 교통체증, 지반침하 등의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칼리만탄섬 동부지역의 발릭파판과 사마린다 사이에 도시를 신설하여 수도를 이전하는 사업
- (추진현황) 재정사업 위주 1단계(2022~2024) 마무리중, 2단계 사업 '25.8월중 입찰공고 예정

○ (주요동향) 신수도 건립은 부정적 여론·평가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장기·대형사업으로, 사업기획 지속 모색 필요

- 신수도청(OIKN)은 신수도 중앙정부 핵심구역(KIPP) 1A 도로 건설 사업을 약 73백만불 (1.2tril IDR) 규모로 발주하여 2025년 8월 초 입찰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현재 PQ 공고 단계에 있다고 밝힘
- 또한 신수도 입법·사법청사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약 177백만불 (2.9tril IDR) 규모로 입찰 공고됨
- 신수도청은 입법청사 구역 도로 건설에 약 60백만불 (982bil IDR)를 투입해 총 3.70km를 MYC 방식으로 추진하며, 공사 기간은 착공명령서 발효일부터 660일로 산정된다고 밝힘
- 재무부 장관 Sri Mulyani는 2026년 국가예산안(RAPBN)에서 신수도청(OIKN)의 예산 상한선이 약 385백만불 (6.3tril IDR)로 책정되었으며, 신수도 중앙정부 핵심구역(KIPP)의 시설 및 인프라 개발 지원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

② 바탐 항나뎃 공항 확장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바탐 경제자유구역청(BIFZA)
- (참여기업) 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
- (사 업 비) 5,948억원
- (사업내용) 기존 T1 리뉴얼, T2 신설, 공항운영 및 지원시설 재배치
- (추진현황) 바탐공항 운영권 인수 및 운영 개시('22.7~'47.6)

- (주요동향) 상업시설(14개 사업권, 32개 매장) 운영사업자 선정입찰 완료('24.1). T1 리노베이션 공사 완료 및 운영개시('24.4)
- T2 신설 재원조달 상황 점검하여 KIND 참여가능성 타진 예정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8월 3~4주)
- 네트워킹 5건 : 영국 상무부, 능률협회컨설팅, 움전자, 한전, 건설 공제조합, 수출입은행, EIPP 자문관, 청기와
- 사업개발 14건 : OCS 도시건축, ZED 건축, KIND 투자정책지원실, KOTRA, LH, 前 자바베카, ADB, Sembcorp Indonesia, GS E&C, 현대건설, 철도공단, 현대경제연구원, 삼성E&A, KIND 인프라사업실, 삼성물산, Plenary, Sinarmas Land, DL E&C
- 대관업무 2건: 아세안대표부,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무역보험공사